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
름은 쉘라였더라 (창4:19)

오늘 본문의 속뜻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라멕,
교회가 황폐해졌다는 건 주님 신
앙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합
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새 교회
는 꼭 이때 등장합니다. 황폐한 상
태에 도달해야만 교회가 주님을
모독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
내 중 아다는 그때 일어난 새 교
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
를, 쉘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
를 말합니다.

이 배경 설명을 포함한 속뜻으로부
터 오늘은 이 한 가지, 곧 어떻게
주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황폐함(荒廢, *vastation*)의 끝판왕
상태인 라멕에게서 아다와 쉘라라는

새 교회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
피고, 그래서 결론, 어떤 경우에도
한평생 주님 향한 사랑과 신앙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 주님, 빛 비추사 저희 영육
을 활짝 열어주셔서 들을 때에 들을
줄, 볼 때에 볼 줄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마음으로 시인, 감동, 아멘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멘!

네, 그럼 시작합니다.

라멕은 가인의 여섯 번째 후손, 즉
가인이라는 이단의 여섯 번째 교회
입니다. 본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¹⁸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
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
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
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쉘라였

창4:19, AC.405-411

‘라멕의 때에 아다와 켈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더라 (창4:16-19)

가인-에녹-이랏-므후야엘-므드사엘-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6대손이라 할 수 있는 이단입니다.

촛불이나 전구를 켜면 한 중앙은 밝고 환하지만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빛이 흐려져 어두워지지요. 마찬가지로 태고교회인 아담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맑고 밝고 아름답더니 그 교회에서 가인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한, 사랑 따로 신앙 따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신앙은 하고자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참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므로,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주님이 보실 때 정확히 이단(異端, *heresy*)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선행, 인애(仁愛), 기부 등), 아벨로 표현된 체어리티를 ‘들에서 쳐죽이는’(창4:8), 즉 체어리티 없는 신앙, 체어리티를 소멸시킨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단이 대를 거치며 여섯 번째에 이르자 드디어 그 어떤 주님 신앙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황, 이런 상태

를 바로 ‘황폐함’(*vastation*)이라 합니다. 주님 신앙을 부인하는 상태가 바로 황폐한 상태입니다.

라멕의 때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건 바로 아래 23절, 24절 때문입니다.

²³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켈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²⁴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창4:23, 24)

여기서 ‘사람’은 신앙을, ‘소년’은 체어리티를 말하며, ‘칠십칠 배’라는 말은 그 황폐함의 상태가 지상에 구현된 지옥 상태와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 관하여 주님이 스베덴보리를 통해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 407번 글에서 411번 글까지입니다.

407 보통 한 교회의 상태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는 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황폐해졌다’(*vastate d*) 하는 것은 바로 그 지경,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태고교회의 경우는 가인파(가인派, *Cainites*)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홍수 후 고대교회의 경우 및 유대 교회의 경우에서도 있었습니다.

주의 강림(降臨, *the Lord's advent*)의 때 종말의 상태가 바로 이런 황폐한 상태였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분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 곧 주님 강림 직후 있었던 교회 역시 그랬으며, 오늘날(※ 1750년대 즈음 유럽) 교회의 경우도 그 안에 아무런 신앙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얼마간 핵들은 늘 남아있는데, 이것은 신앙에 관해 황폐해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태고교회의 경우가 그랬는데, 태고교회의 남은 자들은 홍수 때까지 있었고, 홍수 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태고교회 내 이들 남은 자들을 ‘노아’라 하는 것입니다.

408 하나의 교회가 더이상 그 어떤 신앙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지면 전과 다르게 새로움이 시작, 즉 새 빛이 발(發)하는데요, 말씀에서는 이걸 ‘아침’이라고 합니다.

이 새 빛, 곧 ‘아침’이 왜 교회가 황폐해질 때까지는 발하지 않는지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과 체어리티의 일들은 모독(冒瀆, *profane*)의 일들과 뒤엉킨 상태로 지내왔는데요, 계속 이런 상태에 있는 한, 무슨 빛이나 체어리티의 일이 시작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잡초들’이 모든 ‘좋은 씨’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으면, 신앙은 더이상 모독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걸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며, 시인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대신 알기만

‘라멕의 때에 아다와 켈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모독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인하는 주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자원하여 기다려 왔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사실을 시인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들은 모하메드인들과 이방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교회가 아무것도 시인도, 믿음도 없을 때까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수 없으셨던 이유였습니다.

409 세월이 흐르며 황폐해진 ‘가인’이라 하는 이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은 사랑을 시인해 놓고는 사랑 아닌 신앙을 머리 삼으며, 사랑보다 앞세웠습니다. 이 이단에서 유래한 후대의

이단들은 점점 더 걸걸로 빠지더니 순서상 여섯 번째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아예 신앙조차 부인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새 빛, 곧 아침이 빛을 발하며, 여기 ‘아다와 켈라’라는 이름을 가진, ‘라멕의 아내들’이라는 새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라멕의 아내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교회는 아무 신앙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내적(內的, *the internal*), 외적(外的, *the external*) 교회와 같은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이들 유대인들의 두 교회를, 말씀에 보면 ‘아내들’, 곧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라 하고 있으며, 거기서 레아는 외적 교회, 라헬은 내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 교회들은 겉으로는 둘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외적인 것, 곧 표상적인 것(表象, *the representative*)은 단지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것, 곧 죽은 것인 반면, 외적인 것과 함께하는 내적인 것은 하나의 교회, 여기 아다와 켈라가 그런 것처럼 심지어 하나 된, 같은 교회를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은 라멕처럼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없어 대신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부정(不貞, *infidelity*) 대신 무지(無知, *ignorance*) 가운데 살았지요.

교회가 황폐해졌을 때, 그 가운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을 경우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물며, 교회는 그 경우, 진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하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410 황폐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으면서 알기를 원치 않거나, 보고 있으면서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옛 유대인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의 결과, 뭘 알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이방인들처럼 말입니다.

알면서도 아는 걸 원치 않는, 즉 보면서 보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게 황폐함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때 하나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데요, 이들이 아니고, 이들이 이방인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홍수 전 태고교회에 일어났고, 또 홍수 후 고대교회와, 그리고 유대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새 빛이 그때 빛을 발하고, 그전에는 아닌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들은 계시된 것들을 더이상 모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진리임을 시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411 새 교회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전에 먼저 황폐함이라는 마지막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예언서에서 자주 선언하시는데요, 신앙의 천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황폐함**’, 혹은 ‘**황폐하게 함**’으로,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황무함**’(desolation)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는 ‘**종말**’(consummation), ‘**끊음**’(cutting off)으로도 말씀하십니다. (※ 다음 본문들 참조 : 사6:9, 11-12, 2

창4:19, AC.405-411

‘라뻬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3:8-끝절, 24장, 42:15-18, 램25, 단8, 9:24-끝절, 습1, 신32, 계15, 16 및 이어지는 장들)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석만으로도 한편의 설교가 되는군요!

다만 사이사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보다 더 엄청난 계시들, 아케이나들이 필요하여 그저 간략히 적고 넘어간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계시는 받는 자의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인데,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분들에게 무슨 장성한 계시를 베푸는 것은 마치 이제 막 1, 2, 3, 4 숫자 배우는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미적분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없기 때문입니다.

아다와 쉘라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님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본문입니다.

²⁴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²⁵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²⁶싸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²⁷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²⁸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²⁹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³⁰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13:24-30)

위 본문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 하시며, 우리 안에 왜 영혼의 가라지들이 생기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 주님이 스베덴보리를 통해 풀어 주신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관련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잠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깨어 있는 것이고, 영적 생명과 분리된 자연적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가 보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과 같다. (AE.1006)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때가 ‘잠자는 때’이며, 이때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창2:21) 역시 사실은 이때 아담도 자기 자신에게 깊이 사로잡힌 상태였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했습니다. 가라지를 숙아내다가 알곡마저 건드릴까 해서였지요. 주님은 어느 시대든, 교회든, 심지어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각 시대마다 ‘때가 차는’ 때이며, 개인적으로는 임종, 육을 벗고 영이 되는 때, 비로소 사후 세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어둡고, 나의 미래가 캄캄할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왜 이때 침묵하시나? 왜 저런 불의가 판을 치게 내버려 두시나?’ 하며, 힘들어 합니다.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1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37:1, 7)

라멕의 때가 이르도록 주님은 무슨 새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비록 어두운 이단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영글지 않은 상태인데 추수를 시작하면 어려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자신의 의지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로 행한 것은 다 그 속 사람 안에 활착(活着)되어 남습니다. 활착이란, 옮겨 심거나 접목한 식물이 서로 붙거나 뿌리를 내려 살아남는 것이지요. 즉 그 사람 본인의 고유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에도 남으며, 사후 우리의 걸 사람이 휴면 상태에 들 때, 비로소 등장하는 영원한 우리의 정체, 본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사후 이 속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참고로, 걸 사람은 영과 육을 말할 때는 육을, 영 자체를 말할 때는 영의 걸을 의미합니다.

사후 우리가 천국 또는 지옥을 갈 때 그전에 우리는 천국 갈 사람한테서는 천국에선 쓸데없는 악을, 지옥 갈 사람한테서는 지옥에선 쓸데없는 선을 떼어내는 과정이 진행되며, 그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주 순도 100프로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후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악을 떼어내는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만 있다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리도 쉽게 악을 범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베덴보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22) 권한 바울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문제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신앙의 삶을 살다 배신, 돌이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아까 선이든 악이든 자기 의지로 행한 것들은 다 활착되어 남는다 말씀드렸지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거짓과 결합하고, 주님의 거룩한 선이 악과 결합하는 희한한 상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선인은 천국에서, 악인은 지옥에서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 배신, 배교한 사람들은 그 어느 쪽에서도 쉴 수 없어 참고 약한 처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도 수습하실 수 없게 된다 말씀드린게 이걸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비록 이단이요, 악인일지라도 이런 최악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아케이나는 저 자신, 더 내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쉘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면이 열려 밝히 깨닫게 될 때 더 보
완, 추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하여
튼 사랑의 주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
로 하신다는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멕이라는 끔찍한 이단 가운데에서
그러나 놀랍게도 아다와 쉘라라는
체어리티의 신앙을 일으키시는 주
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런 신비로
운 섭리에 관한 지식을 접하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시편 기
자의 권면입니다.

³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
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⁴또 여호와
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
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⁵네 길
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
면 그가 이루시고 ⁶네 의를 빛 같
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37:3-6)

계속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
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37:8)

우리는 비록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라멕의 때와 같을지라도 분을 그치
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주님, 이제 끝이
구나 싶을 때, 아다와 쉘라를 일으
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저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
로 우리 할 도리만 다하면 되겠습니
다.

주님 앞에 우리 할 도리란 주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
게 체어리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의 선을 행하며,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은 진리를, 사랑은 신앙을 담은
그릇입니다. 진리가 선이라는 그릇
에, 신앙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기
지 않으면, 그건 마치 음식물 쓰레
기와 같이 변질되어 아주 고약한 악
취를 풍기게 됩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그릇에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아멘아멘, 할
렐루야!

2022-07-24(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